

신년사



“교활한 지도자와 정직한 국민의 조합”, 대영제국은 바로 이런 조합의 산물입니다. 만일 영국이 교활한 지도자와 **교활한 국민**의 조합이었다면 그래도 과연 대영제국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신사의 나라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직한 지도자와 정직한 국민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어떠하겠습니까? 가장 바람직할까요? 유감이지만 난세의 호랑지도에게 탐심을 일게 할 위험이 다분합니다. 굳이 말한다면 현명한 지도자와 정직한 국민의 결합체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쉽게 바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겨지는 “교활한 지도자와 정직한 국민이 조합”된 영국이 오히려 근대 최초의 세계제국을 만든 것입니다. “정직한 지도자와 교활한 국민의 조합”은 어떨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훌륭한 리더십을 가르치는 많은 담론을 접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국민이 되는 길을 찾아보는 논의는 매우 적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훌륭한 국민되는 길을 찾고 알아서 그 길을 각자 힘써 가야 합니다. 훌륭한 국민은 정직한 국민입니다. 정직한 국민이 잘 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역사가 증명한 진리입니다.

정직한 국민은—하늘이 돕기만 한다면—현명한 지도자를 가질 수 있고, 운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다면 그래도 교활한 지도자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신년에는 우리 모두 자신에 대해 정직하고 남에게도 정직하고 나라에 대해서도 정직해지기를 더욱 힘쓰도록 합시다. 다만, 소리 없는 조용한 행동을 통하여, 그러면서 희망을 키워 나갑시다.

2013년 1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권성